

‘昌의 귀환’에 벌집 쑤신 한나라당

■ 이회창 대선 출마 초읽기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이 들썩 거리고 있다. 이 전 총재 쪽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대선자금 공개’를 입박한 이명박 후보 쪽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 후보 쪽과 한나라당에서는 이 전 총재의 출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출마 반대·지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남대문에 있는 이 전 총재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출마 관련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출마를 반대하는 민주연대 21 회원들(왼쪽), 출마를 지지하는 팬카페 회원들(오른쪽).

재의 출마를 더욱 압박했다.

한편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의 달인 고건 전 총리와 유외내강의 실천적 정치지도자 박근혜 전 대표, 융기와 소신과 의지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세 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가지도자이자 민심의 바다에 뜻을 올려야 될 당사자”라며 4자 연대를 전격 제안했다.

◇한나라당 반발=한나라당 초선의원 39명은 2일 이 전

총재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는 당시의 적법한 경선 절차와 엄중한 짐증을 거쳐 선출된 당의 유일한 대통령”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지금껏 지켜오신 명분과 원칙을 쟁여버리는 것”이라며 “이 전 총재가 이인제 씨의 경선 불복으로 인한 대선 폐쇄 악용의 당사자로서 오히려 제2의 이인제가 되지 않을 것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덕룡 선거대책위 고문도 이날 CBS뉴스레이더에 출연, “이회창 전 총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2년 대선자금 내역을 적은 수첩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며 수첩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초선의원들 “제 2의 이인제 안된다” 반발

친박(親朴) 의원들의 ‘좌장’적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이 날 ‘백지연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총재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는 질문을 받고 “나는 그 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는 이날 “이 전 총재는 아직도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상대”라고 원칙적인 입장에 기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후주 “보수 대결집…모든 정파와 논의”

선자금이라는 것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모두의 책임이고 꾀라면서 “대선자금 문제로 한나라당이 이 전 총재에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악은 꾀”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이 전 총재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남대문로 사무실 앞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마산·창원 등 전국 6곳에서 ‘이회창 전 총재 지지모임 연대’ 주최로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려 이 전 총

평양에 남북 합작 '치킨 1호점' 등장

북한 평양에도 생맥주에 치킨을 주문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해주는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남북 합작으로 들어선다.

서울에서 ‘맛대로촌닭’을 운영하는 최원호(48) 사장은 오는 15일 평양시내 개선문 인근에 북한 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점포는 평양식과 서울식을 합쳐 양념 뒤집과 통구이 등 12가지 종류의 닭육식과 대동강생맥주를 판매하며 남한과 같이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오토바이 5대로 평양 시내 구석구석에 배달도 한다.

생닭은 북한 현지에서 공급받지만 양념과 뒤집가루, 포장지는 남한에서 보내고 개점과 함께 광고 전단지도 뿐만 아니라 5대로 평양에 들어온다.

100여평 크기의 테이블 50여개로 한꺼번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점포에는 지난 6개월간 최 사장 밑에서 각종 요리법을 전수받은 중국 조선족 1명을 기술자로 배치하고 종업원으로 북한 현지 주민 2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昌에 찔린 정동영 “차떼기·땅떼기당의 혈투”

다자구도 대반전 기회…단일화로 돌파구 모색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정국의 핵으로 돌출한 ‘이회창 변수’로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독주의 대선 판을 흔드는 ‘호재’가 될 것이라던 예상과는 반대로 선거구도가 ‘이회창 대 이명박’ 대결로 급 반전되고 정 후보는 정국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초대형 악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회창 변수로 보수표가 쪼개지는 ‘적진분열’ 효과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정작

정 후보는 전혀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현상마저 보인다. 신당 주변에서는 “창(昌)에 가려질 판” ‘최악의 시나리오’ ‘비참하고 모욕당한 느낌’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막판 반전카드로 기회를 모았던 BBK의 흐드는 이회창 변수의 파괴력에 밀려나면서 폭발력 자체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정 후보측은 “이제 해볼만 하다”고 낙관론을 펴면서 다시 구두끈을 조이고 있다.

현재의 ‘경제 대 경제’ 전선으로는 이명박 후보를 꺾기가 여부족이었지만 이제 ‘과거 대 미래’ ‘부패세력 대 미래세력’으로 구도를 바꾸는 계기를 맞았다는 시각이다.

보수진영의 ‘간판인물’인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할 경우 범여권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중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이 전 총재 출마로 ‘1대 2’의 대결구도가 조성될 경우 쌔어미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전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를 꺾기 위해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 614조원에서 764조원으로 24.4%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대보증 대출의 증가 속도가 일반 대출보다 2배 가량 빨리 진행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8월말 연대보증 규모가 12조3천126억원에 달하면서 2005년말(4조5천873억원)에 비해 168.4% 급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패가 망신’ 연대보증 급증

최근 1년6개월새 50% 늘어

국내 시중은행들의 연대보증부 대출이 최근 1년 반동안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SC제일·한국씨티·외환은

연대보증은 흔히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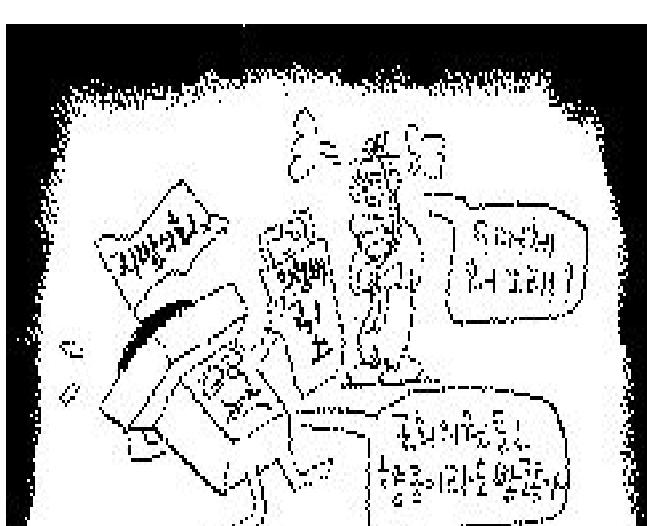
반면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은 614조원에서 764조원으로 24.4%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대보증 대출의 증가 속도가 일반 대출보다 2배 가량 빨리 진행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8월말 연대보증 규모가 12조3천126억원에 달하면서 2005년말(4조5천873억원)에 비해 168.4% 급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그래서 술값(?) 정도 올렸다, 왜?

檢, 전군표 청장 내주초 사법처리

전 청장 “거취표명,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상납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일 전 청장에 대한 구체적 사법처리 방안은 법리검토와 수사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주 초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어제(1일) 전군표 청장은 변호인 참여하에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소환조사내용과 검찰에서 여태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법률,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오늘 (신문에) 영장 청구한다고 오보 비슷하게 됐다. 이것은 (검찰이) 자신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설

명했다.

정 차장검사의 이런 브리핑 내용으로 미뤄 5일 또는 6일께 전군표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유력시되고 있으나,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전 청장은 2일 상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거취 표명설에 대해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부산지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전 청장은 오후 1시20분께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으로 출근하면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아직은 아니죠. 이 시기에는 절대 아니죠”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검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며 “검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연합뉴스

시·설

광주·무안공항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광주·전남 시·도민간 갈등으로 확대됐던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건교부가 광주시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해 내년 6월 광주~부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 때까지 일단 존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인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항공사가 광주공항 잔류를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국제선 이전을 당장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전 원칙과 이전 강행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건교부의 발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광주시가 국제선 이전을 원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빤질식 처방인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부안 고속도로 조기 개통,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신규 국제선 개척 등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부터 추진한 뒤 상황에 따라 광주공항 기능 흡수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 적극 수용하라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민들은 ‘1천만인 국민대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집중 규탄했다. 비수도권이 공동집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잇단 신도시 건설로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부추겨 왔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돼 지방의 산업 및 경제기반은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후반들어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2단계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했

전남도 재정자립도 20%…전국 최하위

광주도 광역시중 끌찌 52%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에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끌찌였다.

기획예산처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전남이 20.1%로 가장 낮았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17.7%, 2006년 17.6%를 기록하는 등 최근 10여 년 새 전국 끌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9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경기 74.9%, 대전 72.1%, 인천 69.8%, 울산 68.4%, 대구 63.9%, 부산 62.9%, 광주 54.2% 순으로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기자 redplane@

‘4조 3천억’ 전남도금고

농협·광주은행 선정

2008년도 전라남도금고로 농협과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09년 12월 말까지 2년간 도의 자금을 맡아 관리할 금고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회계를 담당할 제1금고로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맡을 제2금고로는 광주은행을 각각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광주은행은 일반회계 3조3천760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 7천142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천 816억 원 등 모두 4조3천719억 원의 도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Kwangju Ilbo	

<tbl_r cells="2" ix="2